

# 헌 사(獻詞)

(제1181주기 장보고대사 추모 다례제)

2022. 11. 18.(금) 14:00 / 완도생활문화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 중 회 의장입니다.

해상왕 장보고대사 제 1181주기를 맞아 봉행하는 추모 다례제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헌사를 바치게 된 것은 더없는 영광이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모처럼만에 대사의 후예들이 많이 모여서 대사를 추모하고 선양사업 활성화와 역사문화 공동체를 도모하는 다례제를 모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례제를 준비하신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 박 봉 욱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구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금년에 봉행하는 추모 다례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장보고 후예로써 자긍심이 높아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200여년부터 청해진에서 시작된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향후 백년대계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을 유치한 쾌거의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상무역을 통한 도전과 개척정신의 아이콘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추앙받고 있는

장보고대사의 콘텐츠가 유치 당위성에 녹아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보고 대사의 천년혼이 서려있는 옛 청해진에 세워질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유구한 해양문화 역사를 이어가면서, 국민의 자긍심을 배가시키고, 완도를 활력화 하는 해양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다례제를 봉행하며 염원하오니, 부디 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가 제2의 청해진 시대를 열어가는 군운상승(郡運上昇)의 상서로운 기운이 되도록 굽어 살피주시옵기 바라며,

완도군의회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대사를 추앙하는 마음으로 새긴 헌사를 바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